



'이재수의 난' 강우백 사적 생활 일부 확인

서귀포 월평마을 고문서 해제 등 담은 자료집 발간
1890년 강우백 관련 명문 당시 토지 거래 방식 담겨
호적중초보다 1년 앞선
1866년 '보민절목'도 주목



'서귀포 월평마을 고문서 자료집'에 실린 '이병구처 명문(李炳九處 明文)'. 강우백이 월평 출신 인사임을 알려주는 문서다.

1901년 '이재수의 난'의 세 장두 중 한 명인 강우백(姜遇伯)의 사적 생활을 보여주는 문서가 발굴됐다. 최근 서귀포시월평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펴낸 '서귀포 월평마을 고문서 자료집'에 담긴 명문(明文)이 그것이다.

이번 자료집은 월평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깨'에 간직해온 오래된 고문서를 꺼낸 결과다. 한편 자료를 우

리말로 번역하고 그 의미를 담았는데 총 55건의 소장 문서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29건을 선택해 수록했다. 시대별로는 ▷조선시대 말기(1866-1910년)의 절목(시행규칙), 명문(증명서), 전장기(인수인계서) 등 15건 ▷일제강점기(1910-1945

년) 전장기, 물건기(공동체 관련 문서) 9건 ▷해방 이후(1947-1983년) 회의록, 마을지, 진정서 등 5건으로 나뉜다.

그중 1890년대 토지소유를 이전하는 명문류 가운데 강우백 관련 '이병구처(李炳九處) 명문' 한 점이 확인됐다. 해당 문서엔 1890년에 강우백이 마을 유력자인 이병구에게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자 보리쌀 4마지기 값을 대신 방매(放賣)해주는 내용이 적혔다. 다른 문헌에서 강우백(姜五百)으로 쓰인 이름이 이 시점에서 강우백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집근천부(執近川府)라는 월평마을 지명도 드러난다.

해제를 맡은 홍기표 전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는 "1901년 제주신축민란의 주모자 강우백의 사적 생활을 단편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고, 월평 출신 인사임을 알려주는 문서

로 영구보존되어야 할 사료"라며 "육지부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양전(量田)을 시행하지 못해 주변 사방의 밭으로 위치를 특정해주는 방식인 사표(四標)를 거래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사료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문서 자료집에는 제주목사가 시행한 '호적지본전설치절목', '삼군구폐절목', '보민절목' 등 조선시대 말기 절목류 3건이 들어 있다. 이 중에서 호적중초보다 1년 앞선 1866년 작성된 '보민절목(補民節目)'은 대정현에서만 시행되는 규약으로, 현재 이 지역 다른 마을에서는 확인되지 못한 중요한 사료라고 했다. '보민절목'은 한홍일 대정현감이 흉년을 맞아 구휼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각 마을별로 지급해 그 이자로 실정에 맞게 사업을 영하도록 정했다. 전선희기자

비극을 유예하고 절망 끝 희망으로

기당미술관 소장품전
'태풍이 지나간 뒤' 등
4개 주제 시대의 서사



안진희의 '도시인' (중이에 잉크, 1993).

코로나19 시국을 건너는 우리의 일상이 소장 작품을 통해 한 편의 서사로 펼쳐진다.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이 지난 9일부터 열고 있는 2021년 첫 소장품전 '비극의 모라토리엄'이다.

이 전시에 붙여진 '모라토리엄'은 한 나라나 어느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해 일정 기간 금전 채무의 이행을 연기시키는 일을 일컫는다.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일단 이를 유예하고 지금 여기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의미를 담았다.

'비극의 모라토리엄'은 '바이오닉 쇼크(Bionic Shock)', '슬픔의 시대, 슬픔의 도시', '유예된 비극', '태풍이 지나간 뒤' 등 모두 4개의 주제로 짜여졌다. 이같은 주제 아래 놓인 작품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충격, 불안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도시의 공허, 좌절과 절망 그리고 분노와 우울, 미래

에 대한 사유와 끝내 포기하고 싶지 않은 희망에 대한 바람을 차례로 전한다. 안진희의 '도시인'(1993), 윤명로의 '익명의 땅'(1994), 이건용의 '승리자 92'(1992)를 비롯해 강태환, 고영우, 김성호, 양미경, 윤형근, 현충인 등 도내의 작가 30명의 작품 33점으로 꾸몄다.

전시는 5월 16일까지 계속된다. 인터넷 사전예약이나 현장 발권으로 관람 가능하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국내 1세대 화가들로 보는 이중섭

이중섭미술관 소장품전
김병기·김환기 등 24명
동시대 활동 화가 작품

한국전쟁 시기 서귀포에 머물렀던 피난 화가 이중섭. 그와 함께 활동했던 1세대 대표화가들의 작품이 서귀포 도심 이중섭미술관에 놓였다. 지난 5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시작된 소장품전 '이중섭 친구들의 화원(畫園)'을 통해서다.

5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에는 이중섭처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고단한 삶 속에서도 꾸준히 창작열을 불태웠던 화가 24인의 작품

이 나왔다. 김병기, 김환기, 유영국, 권옥연 등으로 이들 다수는 나라 없는 암흑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화단 서양 화풍을 전수받고, 그것을 국내에 소개했다. 주로 향토주의나 목가주의적인 풍물을 소재로 다른 이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미술의 발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미술관은 이 전시에서 회화 작품과 더불어 동료 화가나 평론가, 문학인 등이 바라본 '화가 이중섭'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소개한다. 이중섭과 친분이 두터웠던 구상 시인의 '이중섭의 인품과 예술', 이중섭과 초등학교와 대학 동창인 김병기 화가의 '이중섭, 화곡의 부조리', 우리나라



김병기의 '제주도' (캔버스에 유채, 1988).

첫 번째 미술평론가로 불리는 이경성의 '이중섭의 예술', 김환기 화가의 '이중섭의 염원과 작품-미와 진실과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등이다.

이중섭미술관은 소장품 기획전과 더불어 상설전시관에서 신소장품전 '우리, 곧 다시 만나요'를 펼치고 있다. 문의 760-3561. 전선희기자

'제주 섬 타자 인식과 혐오 양상' 논의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이달 19일 학술대회 개최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등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이 이달 18-19일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심포지엄과 국내 학술대회를 잇따라 연다.

첫날에는 오후 1시부터 '경계의 사유, 이질과 동질'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실시된다. '통일의 커뮤니티와 이무니타스'(김종곤, 건국대), '분단 트라우마와 분단서사'(남경우, 건국대), '글로벌리티 시대, 인문학의 방향'(민영현, 부산대), '종교의 사회문제화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성찰'(임영빈, 연세대), '태조 왕건의 통일과 포용 정책'(김명진, 경북대)에 대한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둘째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제주 섬', '타자 인식과 혐오 양상'을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질적 공존을 위한 타자와 공간 인식의 문제'(김진선, 제주대), '북녘출신자를 향한 혐오, 탈인간화의 전략과 주체의 (재)배치'(김종곤, 건국대),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김준표, 제주대), '난민 혐오에 대한 유가 윤리적 접근'(김지완, 제주대), '고려 삼별초군의 저항거점 구축과 주요 도서(島嶼)'(전영준, 제주대), '고전산문을 통해 만나는 전쟁포로들의 한 단면'(강문준, 제주대)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 이방인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논의가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혐오와 증오를 치유할 협력과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쿵다(쿵다의 제주어)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행사 장면은 탐라문화연구원 쿵다인문학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umda2019)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제주 사람 애환 녹아든 신화 속으로

제주학연구원 내달부터
'제주신화학교' 6회 강좌
일반신 본풀이 주제 강의

제주인의 삶과 애환이 녹아 있는 제주 신화, 인간과 회로애락을 함께한 신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제주

학연구원(센터장 김순자)가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허정옥)과 손을 잡고 내달부터 '제주신화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제주신화학교'는 '일반신 본풀이 1'을 주제로 12개의 일반신 본풀이 가운데 6개 본풀이를 내용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6개 본풀이를 다루는 강좌는 6월에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강좌는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총 6회)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층 평생배움 공간에서 열린다. '신을 빌미로 한 인간의 이야기, 본풀이'(강정식, 제주학연구소장)를 시작으로 '인간 세상이 이렇게 생긴 내력, 천지왕본풀이'(강정식), '두 여신이 읊뵈는 생명의 꽃과 뿌리, 할망본풀이'(이현정, 제주대 강사), '삼승할망에게 굴복한 마마신, 대별상마누라의 내력, 마누라본풀이'(류진옥, 제주학연구소 연구원), '제

주도 심방의' 맹두 '무업조상과 굿의 유래, 초공 본풀이'(강소진, 제주대 강사), '생사를 가르는 서천꽃밭 이야기, 이공 본풀이'(강정식), '내 북에 산다고 자각하고 스스로 좋은 '전상'을 일구는 삶, 삼공 본풀이'(강소진)에 대한 강연이 잇따른다.

수강료는 무료. 수강 신청서는 이달 15일부터 제주평생교육다모아 누리집(http://damoa.jeu.kr)에서 받는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문의 726-9871. 전선희기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방진방수인증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 제10-2078975호

특허받은 바림판 토출구로 인해 사각지대 최소화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